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의 편제에 대한 연구

¹대구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사학교실 · ²대구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³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⁴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금유정¹ · 엄동명^{3,4} · 송지창^{1,2*}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Yosandangsinjipeuibangkeumnangjibo』

Keum Yujeong¹ · Eom Dongmyung^{3,4} · Song Jichung^{1,2*}

¹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overall form of the 『Yosandangsinjipeuibangkeumnangjibo』 (『Yosandang』).

Methods : The table of contents, organization of the body, citations in the 『Yosandang』 were examined, then compared to the organization of 『Donguibogam』 (『Bogam』) and 『Jeungsinyeon』 (『Jejung』).

Results & Conclusions : Based on the organization of the body, it could be determined that Byun Gwangwon referenced 『Bogam』 and 『Jejung』. However, it was found that 『Yosandang』 strived to be more faithful to the 『Bogam』 than the 『Jejung』 while it also tried to minimize the complicatedness of 『Bogam』. Its organization was unique in that it created new chapters and added contents. Also, through examination of the citations, it could be assumed that those in the 『Yosandang』 were secondary citations of the 『Bogam』 and 『Jejung』. Despite these features, it also cited the 『Zhengzhizhunsheng』 and showed efforts to include new knowledge with citation labels such as ‘新增[newly added]’ ‘自述[original writing]’ and ‘Yosan(樂山)’.

Discussion : The findings of the comparison and examination process of the organization and citations of the book revealed that the uniqueness of the organization of 『Yosandang』 is most obvious in the pediatrics chapter. This indicates that the author's intention was to deal with pediatric diseases professionally.

Key words : book organization, Byun Gwangwon, medical text, Yosandangsinjipeuibangkeumnangjibo

* Corresponding author : Song Jichung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1 Haanydae Rd., Kyungsan, Kyungbuk, ROK

Tel : +82-53-819-1826, Fax : +82-53-819-1850, E-mail : prunedias@gamil.com

Received(July24, 2020), Revised(August 17, 2020), Accepted(August 17,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이하 『樂山堂』이라 함)는 조선후기에 간행된 의서로, 저자는 卞光源이다. 박훈평의 연구¹⁾에 따르면 卞光源(1781~1816)은 자가 汝靜이며 典醫直長을 지낸 의관이었다. 부친 卞重觀(1745~1801)은 영조 50년(1775년) 增廣試 醫科에 합격하여 정조 1년(1777년) 典醫監正을 지냈으며, 장인 白成一(1744~1805)은 정조 1년(1777년) 內鍼醫를 지낸 인물이었다. 한편 『樂山堂』 서문을 보면 卞光源의 스승은 安載述²⁾이다.

『樂山堂』 서문은 조선후기 안동지역 문신인 權訪이 ‘聖上六年丙寅端陽’에 썼고, 卞光源의 발문은 ‘丙寅三月’에 쓴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樂山堂』이 1806년에 출간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필사본(그림 1)이다. 『樂山堂』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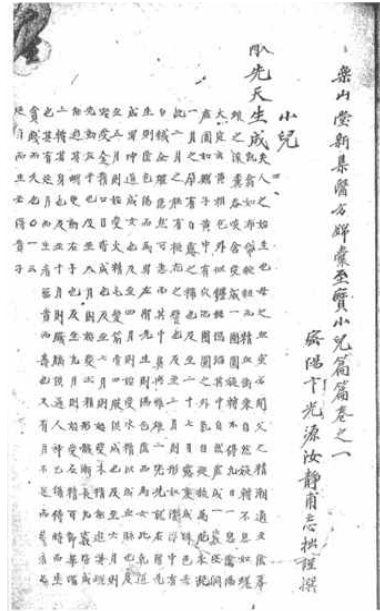


그림 2. 『樂山堂』本文

所藏處 : 한독의약박물관, 분류번호 한-33
著者 : 卞光源
標題 : 없음
裏題 :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
形態 : 筆寫本, 15.0×26.0cm, 22行25字

최근 『樂山堂』 말미에 수록된 藥性歌의 형식에 주목하여 연구³⁾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樂山堂』 약성가가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단순히 두 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樂山堂』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서의 전반적인 모습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두루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차용석의 조선 주요 국가간행의학서의 편제구성에 대한 연구⁴⁾나 박훈평의 『惠局志』의 편제와 내용에 대한 연구⁵⁾ 등 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피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의서의 편제연구는 의서의 성격을 살피는 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되며, 본고에서도 편제 고찰을 통해 『樂山堂』의

1)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회. 2018. pp.212, 219, 205-206.

2) 序文에

“（생략）卞君學於安郵丞載述 得其單傳之旨 梳洗寶鑑之頭面 粧點新編之看目 大備一家之書 使世之人得而讀之 則無待乎後世之子雲 而濟扎瘵已膏肓 參贊乎生物利人之仁矣（생략）”

라 하여 郵丞 安載述에게 의학을 배웠다고 하였다. 安載述(1752~?)은 正祖1년(1777년) 惠民署 參奉으로 부임하여 晉州, 羅州, 南陽의 監牧官을 역임했으며 純祖24년(1824년) 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인물이었다. 安載述이 惠民署의 參奉을 역임한 것 외에는 의학적 성과가 알려진 바가 없으나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학적 성과가 일부 남아 있다. 『承政院日記』에

“上曰 痘醫安載述待命 載述進伏 上曰 俄者用藥 微汗穩眠 此非其效乎 載述曰 果是其效也 仍 命退 承史以次退出” (『承政院日記』 1768책 (달조본 93책) 정조 20년 10월 7일 기묘 기사)

라 하였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安載述은 痘醫로 正祖의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금유정, 유미선, 엄동명, 송지정. 조선후기 의서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收載 藥性歌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 32(2). pp.43-50.

4) 차용석, 김동율. 조선의 주요 국가간행의학서의 편제구성과 질병분류인식에 대한 개설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 32(2). pp.79-90.

5)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pp.119-133.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樂山堂』의 목록, 본문 구성, 인용표기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東醫寶鑑』(이하 『寶鑑』이라 함)과 『濟衆新編』(이하 『濟衆』이라 함)의 편제와 비교·고찰하였다.

한편 『樂山堂』 편제 연구에 『寶鑑』과 『濟衆』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서문의 내용 때문이다.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惟我宣祖昭敬王 命太醫許浚 撰東醫寶鑑二十五卷 迺於竄謫流離之中 編次刮摩未及精密而遞付剗刷 蓋證有一二句而置出三四處藥 有彼此同而重見五六門 篇秩浩穰 眩於攷閱 亦與正宗朝 使首醫康命吉 纂濟衆新編 則所以矯寶鑑之繁蕪 而反失於疎略 覽者蓋兩病焉 今樂山卞君光源 精究是技 奮其獨見 爬羅考竅 編爲一書 於寶鑑則祛其重疊 於新編則取其添補 又採儒家書及散在諸方者名之曰樂山新方 凡十五篇 (생략)

서문을 쓴 權訪은 ‘『寶鑑』은 양이 방대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濟衆』은 간략하여 빠진 내용이 많아, 卞光源이 두 서적을 보완하고 儒家의 서적과 산재된 처방들을 추가하여 『樂山堂』을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樂山堂』의 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寶鑑』과 『濟衆』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본론

『樂山堂』은 權訪의 서문, 목록, 본문, 卞光源의 발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표1). 본문에서는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目錄」(이하 「목록」이라 함)과 『樂山堂』 본문의 서술 순서를 비교하고, 『樂山堂』 본문의 篇名 및 門名을 『寶鑑』과 『濟衆』의 篇名, 門名과 비교하고자 한다. 또, 『樂山堂』에서 밝힌 인용 출처에 대해 정리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표 1. 『樂山堂』의 목차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序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目錄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小兒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小兒篇卷之二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入式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身形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身形篇卷之二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二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三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四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五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雜病篇卷之六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鍼灸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湯液篇卷之一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湯液篇卷之二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跋

1. 「목록」과 본문의 篇名과 門名

『樂山堂』은 「목록」에 따르면 5篇 15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의 기재순서에 따르면 6篇 14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이는 「목록」에는 小兒篇 上·下 2권, 入式篇 1권, 身形篇 上·下 2권, 雜病篇 一~七 7권, 湯液篇 上·中·下 3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小兒篇 2권, 入式篇 1권, 身形篇 2권, 雜病篇 6권, 鍼灸篇 1권, 湯液篇 2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2)과 같다.

표 2. 「목록」과 本文의 篇名 비교

「목록」	『樂山堂』 본문
小兒篇上	小兒篇卷之一
小兒篇下	小兒篇卷之二
入式篇	入式篇卷之一
身形篇上	身形篇卷之一
身形篇下	身形篇卷之二
雜病篇一	雜病篇卷之一
雜病篇二	雜病篇卷之二
雜病篇三	雜病篇卷之三
雜病篇四	雜病篇卷之四
雜病篇五	雜病篇卷之五

雜病篇六	雜病篇卷之六
雜病篇七	鍼灸篇卷之一
湯液篇上	湯液篇卷之一
湯液篇中	
湯液篇下	湯液篇卷之二

篇名뿐만 아니라 門名의 표기도 「목록」과 본문에 차이가 있다.

먼저 門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목록」의 ‘疝疾’이 본문에는 ‘疝病’으로 되어있고, 「목록」의 ‘胞’가 본문에는 ‘胞門’으로 되어 있다. 또, 「목록」에는 본문과 달리 신체부위 뒤에 部를 붙여 ‘頭部’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둘째 「목록」에 없는 門이 본문에만 있는 경우인데, 小兒 治病 胎瘦 胎肥 胎身 胎赤 등이 해당된다. 셋째, 「목록」에 있는 門이 본문에는 없는 경우인데, 乳 諸穴 등이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3)과 같다.

표 3. 「목록」과 本文의 門名 비교

篇名	「목록」	『樂山堂』 본문
小兒篇	X	小兒
	X	治病
	X	胎瘦
	X	胎肥
	疝疾	疝病
身形篇	X	身形
	頭部	頭
	面部	面
	眼部	眼
	耳部	耳
	鼻部	鼻
	背部	背
	胸部	胸
	脇部	脇
	腰部	腰
	腹部	腹
	X	臍
	皮部	皮
	手部	手
足部	足	
雜病篇	乳	X
	胞	胞門
鍼灸篇	諸穴	X

2. 본문의 구성

『樂山堂』 본문은 小兒篇 入式篇 身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 6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小兒篇

小兒篇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小兒·初生·察色·診脈·治病·胎瘦·胎肥·胎寒·胎熱·胎黃·胎赤·鵝口·口瘡·撮口·噤口·臍風·客忤·夜啼·變蒸·繼病·諸驚·癩疾·疝病·諸熱·諸積·腹痛·嘔逆·吐瀉·浮脹·咳嗽·外感·淋疝·雜病·胎瘡·丹毒·斷乳·死證 등 37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痘疹과 麻疹 2개 門으로 되어 있다.

소아에 관한 내용은 『寶鑑』의 경우 雜病篇 卷十一 小兒門에서 설명하였고, 『濟衆』의 경우 卷之七 小兒 痘疹 麻疹 3개 門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樂山堂』은 소아에 관한 내용만으로 篇을 구성하였으며, 39개 門으로 세분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4)과 같다.

표 4. 『樂山堂』 小兒篇의 목차 비교

『樂山堂』		『寶鑑』		『濟衆』	
篇	門	篇	門	卷	門
小兒篇卷之一	小兒	雜病篇卷十一	小兒	卷之七	小兒
	初生				
	察色				
	診脈				
	治病				
	胎瘦				
	胎肥				
	胎寒				
	胎熱				
	胎黃				
	胎赤				
	鵝口				
	口瘡				
	撮口				
	噤口				
	臍風				
	客忤				
	夜啼				
	變蒸				
繼病					

6) 이하 아래 표들은 모두 『樂山堂』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諸驚				
	癩疾				
	疳病				
	諸熱				
	諸積				
	腹痛				
	嘔逆				
	吐瀉				
	浮脹				
	咳喘				
	外感				
	淋疝				
	雜病				
	胎瘡				
	丹毒				
斷乳					
死證					
小兒篇卷之二	痘疹				痘疹
	麻疹				麻疹

『樂山堂』의 서술 방식도 『寶鑑』과 『濟衆』에 비해 자세하였다. 예를 들어 초생아의 구급법에 대한 내용을 『寶鑑』 小兒門에는 ‘小兒初生救急’, 『濟衆』 小兒門에는 ‘胎熱胎寒’에서 설명하였으나, 『樂山堂』 小兒篇에는 胎瘦 胎肥 胎寒 胎熱 胎黃 胎赤 등 6개 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樂山堂』의 嘔逆, 浮脹, 淋疝과 같은 門은 『寶鑑』과 『濟衆』 小兒門에는 따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다.

2) 入式篇

入式篇은 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을 진단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審病·辨症·診脈·用藥 등 4개 門으로 기술하였는데, 『寶鑑』 雜病篇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濟衆』에는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5)과 같다.

표 5. 『樂山堂』 入式篇의 목차 비교

『樂山堂』		『寶鑑』		『濟衆』	
篇	門	篇	門	篇	門
入式篇卷之一	審病	雜病篇卷一	審病	X	
	辨症				
	診脈				
	用藥				

3) 身形篇

身形篇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35개 門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은 身形·頭·面·眼·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胸·脇·腰·腹·臍 등 16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臟腑·五臟·六腑·皮·毛髮·氣·血·精·神·夢·聲音·言語·津液·小便·大便·手·足·前陰·後陰 등 19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身形篇의 門名은 『寶鑑』 內景篇 및 外形篇의 門과 『濟衆』 권2, 권3, 권4에 있는 門과 유사하다. 다만 배열 순서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門이 없거나 혹은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身形篇의 門에는 五體에 관한 내용 중 皮門만이 있다. 또, 身形篇에는 臟腑에 관한 내용을 臟腑 五臟 六腑 등 3개 門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나, 『寶鑑』에는 五臟六腑 門 외 각 11개 장부에 대한 門을 두고 있고, 『濟衆』에는 五臟門과 六腑門 2개만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6)과 같다.

표 6. 『樂山堂』 身形篇의 목차 비교

『樂山堂』		『寶鑑』		『濟衆』	
篇	門	篇	門	卷	門
身形篇卷之一	身形	內景篇卷一	身形	卷之二	身形
	頭	外形篇卷一	頭	卷之三	頭
	面				
	眼				
	耳				
	鼻	外形篇卷二	鼻	卷之四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外形篇卷三	頸項	卷之四	頸項
	背				
	胸				
	脇				
	腰				
腹					
臍		臍		臍	
身形篇卷之二	臟腑	內景篇卷三	五臟六腑	X	X
	五臟		肝臟 心臟 脾臟 肺臟	卷之三	五臟

		腎臟		
六腑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六腑
皮	外形篇卷三	皮	卷之四	皮
毛髮	外形篇卷四	毛髮		毛髮
氣	內景篇卷一	氣	卷之二	氣
血	內景篇卷二	血		血
精	內景篇卷一	精		精
神		神		神
夢	內景篇卷二	夢		夢
聲音		聲音		聲音
言語		言語	言語	
津液		津液	津液	
小便	內景篇卷四	小便	卷之三	小便
大便		大便		大便
手	外形篇卷四	手	卷之四	手
足		足		足
前陰		前陰		前陰
後陰		後陰		後陰

4) 雜病篇

雜病篇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각종 질환에 관한 이론과 치법, 5권은 부인, 6권은 노인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권은 吐法·汗法·下法·風·寒·暑·濕·燥·火 등 9개 門, 2권은 內傷·虛勞·霍亂·嘔吐·咳嗽·喘·痰飲·諸蟲·癆瘵 등 9개 門, 3권은 積聚·浮腫·脹滿·痞滿·消渴·黃疸·泄瀉·痢疾·瘧疾·瘟疫·邪祟·癩癧·狂疾·怪疾 등 14개 門, 4권은 癰疽·諸瘡·諸傷·解毒·救急·雜方·諸法·異術 등 8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5권에는 婦人·胞門 등 2개 門, 6권에는 老人·養生 등 2개 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雜病篇의 門名은 대체로 『寶鑑』 雜病篇의 門名과 유사하지만, 痰飲門, 蟲門, 胞門 등 일부 門은 『寶鑑』 內景篇과 外形篇에 있는 것이다.

또한, 雜病篇의 門 배열순서와 분류는 『寶鑑』, 『濟衆』과 차이가 있고, 『寶鑑』 또는 『濟衆』에 없는 것도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雜病篇에는 胞門을 婦人門 뒤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濟衆』의 서술방식과 유사하며, 『寶鑑』의 경우 胞門은 內景篇에 있고, 婦人門은 雜病篇에 있다. 둘째, 『寶鑑』과 『濟衆』의 한 개 門을 『樂山堂』에서 2-3개 門으로 구분한 경우이다. 『寶鑑』과 『濟衆』의 咳嗽門은 『樂山堂』에서 咳嗽門과 喘門으로, 蟲門은 諸蟲門과 癆瘵門으로, 雜方門은 雜房 諸法 異術 등 3개 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濟衆』의 養老門은 雜病篇 권6의 老人門과 養生門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반대로 『寶鑑』과 『濟衆』에는 구분되어 있는 門을 통합한 경우도 있다. 『寶鑑』과 『濟衆』에서 婦人門과 乳門으로 구분된 내용이 『樂山堂』에는 모두 婦人門에 있다. 넷째, 『樂山堂』에 새롭게 등장하는 門이 있다. 『樂山堂』 雜病篇 권3의 痞滿 泄瀉 痢疾 癩癧 狂疾 등 5개 門은 『寶鑑』과 『濟衆』에는 없다. 다만 痞滿門은 胸門의 내용 중 일부와 유사하고, 泄瀉門과 痢疾門은 大便門의 내용과 유사하며, 癩癧門과 狂疾門은 神門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7)과 같다.

표 7. 『樂山堂』 雜病篇의 목차 비교

『樂山堂』		『寶鑑』		『濟衆』	
篇	門	篇	門	卷	門
雜病篇卷之一	吐法	雜病篇卷一	吐	X	X
	汗法		汗	X	X
	下法		下	X	X
	風	雜病篇卷二	風	卷之一	風
	寒	雜病篇卷二·三	寒(上), 寒(下)		寒
	暑	雜病篇卷三	暑		暑
	濕		濕		濕
	燥		燥		燥
火	火		火		
內傷	雜病篇卷四		內傷		卷之二
虛勞	雜病篇卷五	虛勞			虛勞
霍亂		霍亂		霍亂	
嘔吐		嘔吐	卷之四	嘔吐	
咳嗽	咳嗽	咳嗽			
喘	內景篇卷二	痰飲	卷之二	痰飲	
痰飲		痰飲			
諸蟲		蟲	卷之三	蟲	
癆瘵	內景篇卷三				

雜病篇 卷之三	積聚	雜病篇 卷六	積聚	卷之五	積聚
	浮腫		浮腫		浮腫
	脹滿		脹滿		脹滿
	痞滿	X	X	X	X
	消渴	雜病篇 卷六	消渴	卷之五	消渴
	黃疸		黃疸		黃疸
	泄瀉	X	X	X	X
	痢疾	X	X	X	X
	瘧疾	雜病篇 卷七	瘧疾	卷之五	瘧疾
	瘟疫		瘟疫		瘟疫
邪祟	邪祟		邪祟		
癩癩	X	X	X	X	
狂疾	X	X	X	X	
怪疾	雜病篇 卷九	怪疾	X	X	
雜病篇 卷之四	癰疽	雜病篇 卷七·八	癰疽(上) 癰疽(下)	卷之五	癰疽
	諸瘡	雜病篇 卷八	諸瘡		諸瘡
	諸傷	雜病篇 卷九	諸傷		諸傷
	解毒		解毒		解毒
	救急		救急		救急
	雜方		雜方		雜方
諸法	雜病篇 卷十	婦人	卷之六	婦人	
異術					
雜病篇 卷之五	婦人	外形篇 卷三	乳	卷之四	乳
	胞門	內景篇 卷三	胞	卷之六	胞
雜病篇 卷之六	老人	X	X	卷之七	養老(新增)
	養生	X	X		

구성되어 있다. 1권의 湯液序例門은 『寶鑑』 湯液篇 내용과 유사하며, 『濟衆』에는 없는 내용이다. 2권의 藥性歌는 7언2구 형식을 갖고 있고 草本과 木本 본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濟衆』 및 『寶鑑』의 내용과 卞光源이 직접 서술한 내용⁷⁾으로 되어 있다. 또 物性記에는 광물성, 동물성 본초와 식재료로 사용되는 본초 등이 서술되어 있다. 『濟衆』에는 藥性歌 내용만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8)과 같다.

표 8. 『樂山堂』 湯液篇의 목차 비교

『樂山堂』		『寶鑑』		『濟衆』	
篇	門	篇	門	卷	門
湯液篇 卷之一	湯液序例	湯液篇 卷一	湯液序例	X	X
	藥性歌	湯液篇 卷一	水部, 土部, 穀部, 人部, 禽部, 獸部	卷之八	藥性歌(附新增)
湯液篇 卷之一	物性記	湯液篇 卷二	魚部, 蟲部, 果部, 菜部, 草部(上)	X	X
		湯液篇 卷三	草部(下), 木部, 玉部, 石部, 金部		

5) 鍼灸篇

鍼灸篇은 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門을 분류하지 않고 침구이론, 경혈, 병증별 침구법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한편 『寶鑑』 鍼灸篇은 門 분류 없이 침구이론과 경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濟衆』에는 鍼灸에 관한 門이 없다. 또한 『寶鑑』은 鍼灸篇을 두면서도 門 말미에 鍼灸法을 통해 별도로 침구치료를 설명한 것과 달리 『樂山堂』은 鍼灸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鍼灸篇』에서만 서술하였다.

6) 湯液篇

湯液篇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의 湯液序例, 藥性歌와 2권의 物性記 등 총 3개 門으로

3. 『樂山堂』 인용표기

『樂山堂』에는 각 소제목 상단에 小字로 인용출처를 표기하고 있다. 15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표기가 있고, 서적 보존상태의 문제로 인용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7군데 있다. 『樂山堂』에 나오는 인용표기는 모두 132종이다. 이 중 인용빈도를 보면 入門이 747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本草가 328회, 丹心 207회, 得效 205회, 醫鑑 188회, 回春 173회, 新增 152회, 正傳 124회, 東垣 107회,

7) 금유정, 유미선, 엄동명, 송지청. 조선후기 의서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收載 藥性歌에 대한 연구. 한국외사학회. 2019. 32(2). pp.43-50.

표 9. 『樂山堂』 인용표기(빈도)

入門(747)	本草(329)	丹心(207)	得效(205)	醫鑑(188)
回春(173)	新增(152)	正傳(124)	東垣(107)	綱目(99)
直指(86)	內經(62)	新編(62)	仲景(55)	新集(50)
寶鑑(48)	保元(46)	俗方(43)	局方(41)	靈樞(38)
內局(36)	諸方(33)	準繩(30)	活人(30)	類聚(26)
良方(25)	海藏(25)	錢乙(23)	本事(22)	千金(20)
難經(19)	河間(18)	三因(17)	易老(17)	銅人(16)
醫林(15)	種杏(14)	精義(12)	保命(11)	集略(10)
必用(9)	丹溪(8)	脈訣(8)	資生(8)	子和(8)
精要(8)	聖惠(7)	濟生(7)	食物(6)	自述(6)
脈經(5)	神應(5)	濟衆(5)	運氣(5)	日用(5)
錢氏(5)	湯氏(5)	病源(4)	宣明(4)	扁鵲(4)
經驗(3)	方廣(3)	醫說(3)	養生書(3)	正理(3)
華佗(3)	禽匱(2)	懼仙(2)	名醫(2)	辨疑(2)
新方(2)	瑞竹(2)	永類(2)	養生(2)	玉機(2)
延壽書(2)	養生(2)	赤水(2)	必用方(2)	樂山(2)
廣嗣(1)	景岳(1)	甲乙(1)	奇效(1)	紺珠(1)
金丹問答(1)	澹寮(1)	唐人秘傳(1)	痘心(1)	丹經(1)
明論(1)	拔粹(1)	白玉蟾(1)	保嬰(1)	別方(1)
孫兆(1)	省翁(1)	十三方(1)	新書(1)	產寶(1)
仙書(1)	參同契(1)	食譜(1)	產書(1)	御藥(1)
易簡(1)	入式(1)	儒門事親(1)	元戎(1)	養老(1)
王隱君(1)	外台(1)	衛生(1)	虞世(1)	劉宗厚(1)
涓子(1)	禮記(1)	醫宗(1)	養生書(1)	雲籤(1)
節齋(1)	眞詮(1)	集驗(1)	全嬰(1)	雜方(1)
纂要(1)	湯液(1)	彭祖(1)	鄉集(1)	華扁(1)
淮南子(1)	還丹(1)			

綱目 99회 등의 순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9)과 같다.

132종의 인용표기 가운데 『寶鑑』에서 확인되는 표기는 117종이다. 『寶鑑』에는 나오지 않는 15종의 표기는 新增(152) 新編(62) 新集(50) 保元(46) 內局(36) 準繩(30) 自述(6) 濟衆(5) 赤水(2) 樂山(2) 景岳(1) 痘心(1) 丹經(1) 保嬰(1) 醫宗(1) 이다. 이 중 新編과 濟衆은 『濟衆』을 의미하는 것이고, 保元(『壽世保元』), 內局, 赤水(『赤水玄珠』), 景岳(『景岳全書』), 痘心(『痘疹心法』), 丹經⁸⁾, 保嬰(『保嬰撮要』), 醫宗(『百代醫宗』)은 『濟衆』의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樂山堂』에만 나오는 인용표기는 新增, 新集, 準繩, 自述, 樂山 5종이다.

新增은 총 152회 인용되었는데, 이 중 108회가

小兒篇에 나온다. 108회 중 83회는 小兒篇 卷二의 痘疹門과 癩疹門에서 확인된다. 또한 152회 중 40회는 雜病篇에 나오는데, 그 중 20회는 老人門에서 확인된다. 152회 중 나머지 4회는 身形篇에 나온다.

新集은 50회 인용되었다. 모두 鍼灸篇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환별 鍼灸法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된 표기이다. 準繩은 『證治準繩』을 의미하며, 총 30회 인용되었다. 모두 처방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小兒篇 卷一에서만 인용하였다. 自述은 저자의 견해로 판단되며 身形篇 1회, 雜病篇 1회, 鍼灸篇 1회, 湯液篇 3회 사용되었다. 樂山도 저자의 견해로 판단되지만 自述과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총 2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小兒篇 卷二에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10)과 같다.

8) 어떤 책인지 확인 할 수 없었음.

표 10. 『樂山堂』에만 나오는 인용표기

인용 표기	인용빈도						
	전체	小兒篇	入式篇	身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
新增	152	108		4	40		
新集	50					50	
自述	6			1	1	1	3
樂山	2	2					
準繩	30	30					

Ⅲ. 고찰

본문의 門名과 인용표기를 『寶鑑』 『濟衆』과 비교한 결과 卞光源이 『樂山堂』을 저술하면서 두 서적을 상당히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樂山堂』은 小兒篇, 入式篇 등 새로운 篇을 구성하고, 門의 분류를 달리 하였으며, ‘新增’과 같은 인용표기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寶鑑』 『濟衆』과는 다른 독특한 편제를 가지고 있었다.

1. 본문

1) 小兒篇

『樂山堂』의 가장 큰 특징은 소아에 대한 내용을 篇으로 구성하여 책의 가장 앞에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寶鑑』, 『濟衆』과 달리 소아질환을 小兒篇으로 구성하고 각 질환마다 門을 세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가 소아질환을 중시했으며, 『樂山堂』을 통해 소아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2) 入式篇

『樂山堂』 入式篇은 審病, 辨證, 診脈, 用藥의 門을 세워 질병을 판단하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寶鑑』처럼 雜病篇 내에 두지 않고 小兒篇을 제외한 다른 篇들보다 앞에 배치한 것은 저자가 入式을 雜病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

3) 身形篇

‘身形’은 『寶鑑』 內景篇의 門名이다. 하지만 『樂山堂』은 ‘身形’을 篇名으로 하여 『寶鑑』의 內景篇과

外形篇에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寶鑑』에서는 精氣神血五臟六腑 등 인체 내부에 대한 내용은 內景篇에서, 頭面眼耳鼻 등 인체 외부에 관한 내용은 外形篇에서 구분하여 서술하였지만 『樂山堂』에서는 모두 身形篇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인체를 內景과 外形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雜病篇

『寶鑑』 內景篇의 胞門을 『樂山堂』에는 雜病篇 婦人門 다음에 두어 부인 질환을 한 곳에 모으고자 했다. 또, 老人門과 養生門을 두어 老人疾患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환자를 소아, 일반성인, 노인, 부인 즉 男女老少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鍼灸篇

鍼灸篇의 마지막에는 질환별 鍼灸法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小兒鍼灸 외 51개 병증에 대한 鍼灸法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였다. 이 부분은 『寶鑑』 鍼灸篇에는 없는 내용으로 鍼灸法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湯液編

湯液篇은 藥性歌門과 物性記門을 각각 두어 本草를 藥性和 物性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저자가 다용되는 草本과 木本類 본초를 중심으로 藥性歌를 구성하고, 비교적 약으로 덜 사용되는 동·광물성 본초 및 식재료를 物性記로 서술하여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용표기

1) 『寶鑑』과 『濟衆』의 인용표기

인용표기를 비교한 결과 『樂山堂』의 인용출처가 많은 부분 『寶鑑』과 『濟衆』의 인용표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濟衆』을 의미하는 2종의 인용표기와 『寶鑑』에는 없고 『濟衆』에는 있는 8종의 인용표기의 내용이 『濟衆』의 내용임을 확인하

었다. 이를 통해 『樂山堂』이 『濟衆』을 2차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寶鑑』 또한 2차인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樂山堂』에만 나오는 인용표기

『樂山堂』에만 나오는 5종의 인용표기를 통해 『樂山堂』이 『寶鑑』과 『濟衆』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證治準繩』을 인용한 사실은 『樂山堂』이 단순히 『寶鑑』과 『濟衆』만을 참조하여 저술한 의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樂山堂』에서는 小兒篇 卷一에서 총 30회 『證治準繩』을 인용하여 『寶鑑』과 『濟衆』에는 없는 30개의 처방을 기술하였다.

또한 『樂山堂』에만 나오는 인용표기들이 小兒篇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新增’ 152회 중 108회가 小兒篇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도 83회는 痘疹門과 癩疹門에 나오며, ‘準繩’과 ‘樂山’의 표기는 모두 小兒篇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卞光源의 관심이 小兒疾患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卞光源의 스승 安載述은 正祖를 치료한 痘醫였다. 따라서 卞光源 또한 痘疹 치료를 비롯하여 小兒科醫였을 가능성이 있다. 『樂山堂』 卷1,2가 小兒篇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老人疾患에도 ‘新增’을 대폭 기재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IV. 결론

『樂山堂』은 조선 후기 의관 卞光源이 1806년에 저술한 의서이다. 현재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6책 14권 구성의 筆寫本 의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樂山堂』의 편제를 『寶鑑』 『濟衆』의 편제와 비교하여 『樂山堂』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樂山堂』은 서문, 목록, 본문, 발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小兒篇 入式篇 身形篇 雜病篇 鍼灸篇 湯液篇 등 6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樂山堂』 본문의 편제를 통해 『樂山堂』은 『寶鑑』과 『濟衆』을 참조하였으나 서문의 내용처럼 『寶鑑』의 번잡함을 줄이면서도 『濟衆』의 내용보다는 충실히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저자가 새롭게 篇을 구성하고 門을 분류하는 등 『寶鑑』 『濟衆』과는 다른 독특한 편제를 가지고 있다.
3. 卞光源은 『樂山堂』을 저술하면서 『寶鑑』과 『濟衆』에는 인용되지 않은 『證治準繩』을 인용하고, ‘新增’ ‘自述’ ‘樂山’ 등의 인용표기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4. 『樂山堂』 편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小兒篇이다. 小兒에 관한 篇을 구성하여 가장 먼저 배치하였고, 새로운 지식 대부분이 小兒篇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저자 卞光源이 小兒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樂山堂』을 통해 소아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글

연구를 위해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자료를 제공해주신 한독한의약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한국인물사연구원.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 도서출판 태오름. 2014.
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3. 허준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17.
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18), 濟衆新編. 서울. 驪江出版社. 1994.
5. 김유정 외 3인. 조선후기 의서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收載 藥性歌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 2019. 32(2).
<https://doi.org/10.15521/jkmh.2019.32.2.043>

6. 차웅석, 김동윤. 조선의 주요 국가간행의학서의 편제구성과 질병분류인식에 대한 개설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 32(2).
<https://doi.org/10.15521/jkmh.2019.32.2.079>
7. 박훈평, 안상우. 해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https://doi.org/10.15521/JKMH.2014.27.1.119>
8. 승정원일기 [검색날짜 2020년 6월 19일]:Available from:
URL:<http://sjw.history.go.kr/id/SJW-G20100070-03400>